

Courier Correo Courier

2017년 10월
제 32권 2호



**Mennonite
World Conference**
A Community of Anabaptist
related Churches

**Congreso
Mundial Menonita**
Una Comunidad de
Iglesias Anabautistas

**Conférence
Mennonite Mondiale**
Une Communauté
d'Eglises Anabaptistes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아나뱃티스트 관련 교회들의 공동체

3

영감 및 반영

성경 해석의 미래

오늘과 미래를
향한 성경의 역할

7

관점

지상 명령

14

지역 개요

아르헨티나

18

자료

세계 아나뱃티스트
연대 주일, 갱신
2027, 선교
위원회의 만남,
재정 업데이트



표지 사진: "Flight," 네덜란드 메노 나이트 교회(Verenigde Doopsgezinde Gemeente Amsterdam - Singelkerk) 의 Lynn Leegte의 작품

Photo: Karla Braun

Courier Correo Courier

Volume 32, Number 2

Courier/Correo/Courrier is a publication of Mennonite World Conference. It is published twice a year, containing inspirational essays, study and teaching documents and feature-length articles. Each edition is published in English, Spanish and French.

César García Publisher
Kristina Toews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Karla Braun Editor
Melody Morrisette Designer
Sylvie Gudin French Translator
Marisa & Eunice Miller Spanish Translators
KyongJung Kim Korean translator

Courier/Correo/Courrier is available on request. Send all correspondence to: MWC, Calle 28A No. 16-41 Piso 2, Bogotá, Colombia.

Email: info@mw-cmm.org
 Website: www.mw-cmm.org
 Facebook: www.facebook.com/
 MennoniteWorldConference
 Twitter: @mwcmm
 Instagram: @mwcmm

Courier/Correo/Courrier (ISSN 1041-4436) is published twice a year. See <https://www.mw-cmm.org/article/courier> for publication schedule history.

Mennonite World Conference, Calle 28A No. 16-41 Piso 2, Bogotá, Colombia. T: (57) 1 287 5738. Publication Office: Courier, 50 Kent Avenue, Suite 206, Kitchener, Ontario N2G 3R1 Canada. T: (519) 571-0060.

Publications mail agreement number: 43113014
 Printed in Canada at Derksen Printers using vegetable-based inks on paper from a responsible sustainable forest program.

Word from the editor



성경 말씀은 종교 개혁의 뿌리이자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아나뱃티스트 운동 역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을 자칭했던 사람들도 삶의 원리가 성경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성서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는 아나뱃티스트 운동 500 주년을 기념해서 일상 생활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기억하고 기념할 일이지만, 또한 슬프게도 그

로 인해 많은 분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나뱃티스트 운동을 기념해서 MWC가 제정한 앞으로 10 년간의 영적 쇄신 활동을 갱신 2027 이라고 합니다.

갱신2027의 첫번째 행사는 2017년 2월에 "말씀으로 변화됨: 아나뱃티스트 관점에서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치뤄졌습니다. 이번 호 (Courier)에서는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태동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연례 행사 중 첫 번째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실었습니다.

근원적 종교 개혁을 시작한지 500년 지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종이 대신에 휴대폰에서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번역 옵션을 사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담는 매체는 바뀌었지만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된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우리의 성경을 읽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MWC 평화위원회의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곤잘레스 (Antonio Fernandez Gonzalez)는 아나뱃티스트 신자의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단순함은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 선언하도록 유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안내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MWC 믿음과 삶 위원회의 Valerie Rempel은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첫 개혁자들의 급진적인 열정을 갖고 성경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렘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와 다른 관점의 사람들로 부터 배우고 사랑과 선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함께 탐구하고, 공부하는 신앙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점(Perspectives) 섹션에서는 아나뱃티스트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다섯 대륙을 대표하는 젊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해석하여 각자의 상황에 반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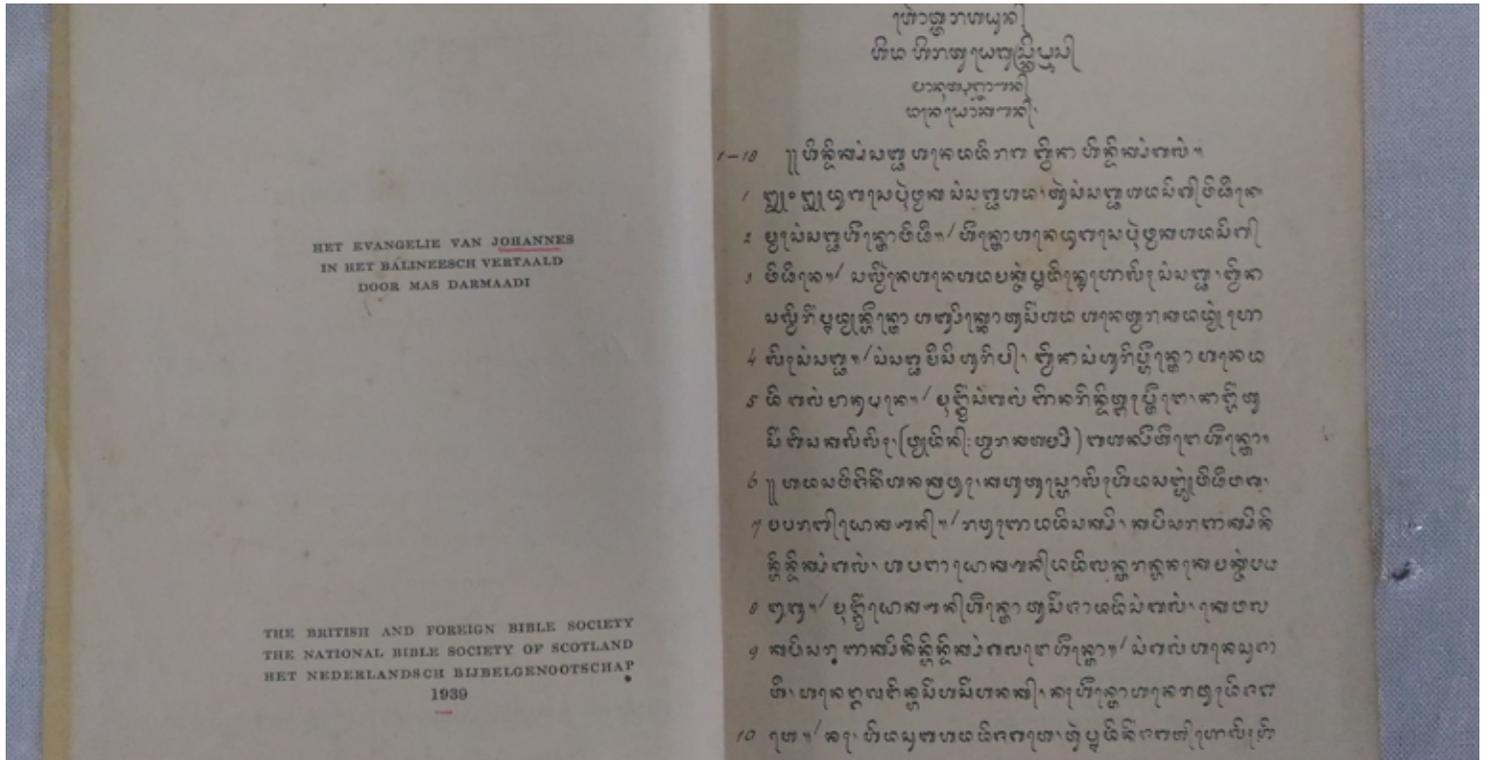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나뱃티스트 선교의 첫번째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는 2017년에 아나뱃티스트 100년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 지도자인 마리오 스나이더 (Mario Snyder)는 아르헨티나 국가 프로필을 Courier에 실었습니다.

미국의 종교 학자 필리스 티클 (Phyllis Tickle)은 기독교 역사가 500년마다 변화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500년 전,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점을 달리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500년 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 더 많이 배울 때가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번 MWC 총회는 2018년 케냐에서 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연사들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갱신 2027"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칼라 브라운은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 잡지인 Courier 편집장이며 현재 캐나다 위니펙에 살고 있다.

Courier는 일 년에 두 번 (4월, 10월) 발행하는 MWC잡지로서 전세계 아나뱃티스트 가족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창조세계와 돌봄, 성령에 관해 알아볼 것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주제를 설명하는 사진이나 삽화, 작품이 있다면 Courier 및 다른 MWC 홍보를 위해 photos@mw-cmm.org에 보내주세요.

성경 해석의 미래



안토니아 곤잘레스

유럽에서는 미래를 이야기 할 때 다소 절망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경제 위기, 정치적 비전의 부재, 복잡한 종교 상황은 희망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세속화는 교회 활동보다도 우세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안적으로 이슬람교가 유럽에서 미래의 다수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성경 해석의 미래는 거의 무의미한 것만 같습니다.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논의가 끝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속화는 성경을 간신히 주목할 만한 텍스트로만 간주하고, 종교적 형태 외에 달리 배울 게 없다고 까지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쇠퇴한 것은 단지 세속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역동성도 그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가톨릭 관점에서, 성경 본문은 교리 구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세기 동안 새로운 지식층이 만들어졌고, 그 권위가 성경의 원래 텍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유로운 개신교 관점에서, 권위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비평에서 찾

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가 성경을 판단하는 문화적, 이론적 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경은 현대의 타당성으로 대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경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주의자” 해결책은 미래에 별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과학적 문화에 도전하는 일종의 지적 희생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근본주의자의 대안은 성경 해석 과정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것은 안셀미아의 구속적 입장, 아르미니언의 은혜 개념, 19 세기 다윈에 대한 반대, 또는 자신들이 생각한 맥락과는 관계없이 성경에 근거한 천년 왕국에 대한 현대의 추측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해석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희생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공하는 해석을 항상 선호합니다. 종교 학대에 환멸을 느낀 다른 사람들은 지배 문화와 타협해서 그 자체가 성경보다 더 존중 받는 권위주의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일시적인 인간의 교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진 성경 말씀과 혼동하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올 틈새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 자바 언어 (Aksara Jawa)로 기록된 성경의 내부입니다. 자바어는 세 개의 메노나이트 교단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사진: 예즈라 위라부미

그러나 틈새는 벽이나 무덤에 조각된 움푹 패인 것에 불과 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성경 해석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저는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이 처음부터 접근했던 방법들을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뱃티스트가 제시했지만 거의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경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나뱃티스트 관점에서, 해석의 권위는 기본적으로 교회적 권위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칼 바르트가 말했듯이) 잘 기억합니다. 권위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육신이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변화의 과정은 마치 도로와 같습니다.”
 아나뱃티스트 청년 위원회의 멘토인 에티오피아의 티지스트 게라그레(Tigist Gelagle)의 말입니다.

사진: 티지스트 게라그레

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 해석은 일각의 맹목적 수용이나 단순히 문화적 또는 비과학적 수용이 아니라, 특정 텍스트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 해석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의 주된 특징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대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16 세기의 초기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이 말한 것 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포도주를 담는 가

죽 부대입니다. 성경이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면, 그 기록은 영원한 교리적인 설명서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영원한 교리로 대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포함 된 모든 교리는 궁극적으로 그 말씀의 성격을 부여하신 최종 권위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참고가 될 뿐입니다.

말씀의 참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성경의 상대적 참조는 미래 해석학의 또 다른 필수 요소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실천적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기능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아나뱃티스트가 처음에 접근한 성경 해석 방법을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나뱃티스트는 우리가 주님을 삶에서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신학책이 되기 전에는 주님을 따르는 지침서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교리적 관점이나 세계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도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해석이 이루어지는 아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모든 해석의 실제적 특징을 구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위한 검문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해석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의 맥락, 더 넓은 문화, 또는 문화적 시기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성경 본문의 의미는 항상 그 맥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문맥적 관계를 인식한다고 해서, 해석 과정에 존재하는 영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께서 역사적 맥락, 사람, 및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진리의 길로 인도 하셨음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겐 성령이 필요하지 않고, 성경만 항상 타당하고 영원한 지침서로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물론 성경 해석은 필연적인 영적 과정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교리 체계와 혼동되거나 성경이 보다 “현대적인” 교리에 근거하여 평가 될 때 쉽게 잊혀집니다.

성령의 바람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불니다. 물론 이 “영적” 자유는 예수님, 바울, 요한이 구약 성경을 읽은 구체적인 방식에서 발견한 자유와 동일합니다. 과거에 명

확한 의미를 찾지 못한 것과는 달리 성령님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죽은 텍스트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을 합니다.

해석 과정

이것은 해석 과정이 항상 열린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인” 해석을 가정 할 수 있는 가톨릭 관점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해석이 역사상 필요한 개정 과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정된 교리로 말씀을 식별하는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조차, 과거 해석을 개정하지 않거나, 그 풍성함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해석이 결정적이라고 주장 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기 아나뱃티스트는 “우리는 내일 더 많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해석적 퇴적물의 새로운 층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성경 말씀이 숨겨지는 것은 이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해석이 열린 과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았던 해석을 상대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상대성은 원래의 역사적 사건을 존중하기에 모든 경험의 투명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사건은 성경 말씀을 구성하기 위해 본문을 배열하고 편집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사건이란 진정으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

이런 이유로, 해석 과정의 개방성은 혼란을 가져 오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해석은 신자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개인적 해석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신자들의 해석을 인도하신 분도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의 과정은 아



운두라스의 메노나이트 복음 교회의 마리오 헤르난데스 (Mario Hernandez)는 운두라스의 라세이 바 (La Ceiba) 해변에서 열린 메노나이트 청년 수련회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성서에 관해 전했습니다.

사진: 마리오 안토니오 에르난데즈 아귀레

16세기 아나뱃티스트는 “성경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이지 포도주 자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기능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뱀티스트가 잘 이해한 것처럼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성경 해석은 권위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나, 국가 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공식적인 신학자들이나 (또는 인터넷상의 새로운 해석)에게 위임 될 수 있는 과정도 아닙니다.

공동의 비전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서, 아나뱀티스트의 공동체적 성경 해석은 성경 해석의 미래와 엄청난 관련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해석은 지역 교회가 성경 해석의 첫 번째 계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메시아의 최종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모든 인간적 또는 교회적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공동의 해석은 아주 구체적인 공동체적 해석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성 및 취약성에 대해서 적어도 교황이나 목회자, 신학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의 해석은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해석은 성령에 대한 자신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해석을 하든지 지적 운동이나 영향력을 위한 단순한



2017년 2월 MWC 위원회들이 독일에서 만나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진: 빌헬름 용거

투쟁으로 변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의 아나뱀티스트와 마찬가지로, 성경 해석이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랄 때, 성경 해석 과정은 미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린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성경 해석 과정은 에큐메니칼 맥락에서 더 넓은 지평을 열어 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다는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안토니오 곤잘레스 페르난데스 (Antonio Gonzalez Fernandez)는 MWC 평화위원회 일원이며, 스페인의 그리스도교 형제 교회의 목사이며 Centro Teologico Koinonia의 교수입니다. 이 자료는 안토니아 곤잘레스가 2017년 2월 12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Augsburg)에서 "말씀으로 변화됨: 아나뱀티스트 관점에서 성경 읽기"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갱신 2027 - 말씀으로 변화됨, 아나뱃티스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음.

2017년 2월 12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아나뱃티스트 청년 위원회 (YABs: Young AnaBaptists)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YAM 위원회의 발표자료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파라과이 전도 활동

도미니크 베르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습니. 그러면서 점차 더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랐습니.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따르는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go”라는 활동성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자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 많은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싶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려서는 안되고, 이웃들과 복된 소식을 나누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복된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세가지 방법은 가정 방문 전도, 대중 전도, 및 우정 전도입니다.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특히 작업 시간과 깊이를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

상황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파라과이의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헌신합니다. 병원, 학교 및 교회를 시작하는 일은 항상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나눕니다.

파라과이에서 청소년 그룹과 다른 교회들이 전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축구입니다. 파라과이에서는 배구, 농구,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축구”만 합니다. 모두가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일부 교회는 토요일에 축구를 하고 일요일 저녁에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합니다. 이런 활동의 주요 목적은 설교를 듣거나 영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청소년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편안해지면 청소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합니다. 때때로 모임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친구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나 캠프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복음전도는 각 교회가 속한 문화적 상황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신자들은 방법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동기를 부여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복음전도는 타인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도미니크 베르겐 (Dominik Bergen)은 파라과이의 메노나이트 형제 교회 (Mennonite Brethren church) 교인으로서 2015년 7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회의 (Global Youth Summit)에서의 라틴 아메리카 YAB위원회에 위촉 받았습니다. 그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신학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 대표는 콜롬비아 출신의 오스카 수아레스 (Oscar Suarez)입니다.

네덜란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젠틴 후이스만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도둑질, 살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 20:15, 13). 우리는 질투해서는 안되며(출애굽기 20:17), 평화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롬 12:18).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바르게 행동하며, 관대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가르침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프거나 의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등, 다른 사람들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 복음 25 : 34-36).

그러나 마태 복음 28 장 19 ~ 20 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메노나이트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과 일자리로 돌아갔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위대한 시대를 회상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서히 잊혀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에 대한 희망과 믿음, 비전을 공유하고 MWC와 같은 협의회에서 교제를 합니다.

다문화 사회

그러나 네덜란드의 상황에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른 많은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이민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이 유익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다른 종교를 알게 되면서 풍성 해졌습니다.

다문화 세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슬람교도 이웃에게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까? 유대인 친구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의 할 일입니까?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문화, 종교 그 밖의 배경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은 또한 개인적인 것입니다. 메노나이트 교회들 사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무슬림 친구 사이에도, 다른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고 말해야만 되나요?

요한 복음 4 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서 물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속적 사회

그러나 저는 다문화 세계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신앙은 더 이상 의미가 있

행동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당신의 “행동”입니다.

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신도 설교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의 신앙과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초청해서 이야기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보다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의미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행 1:8).

저는 이웃을 잘 돌보고, 생각보다 더 친절히 대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일을 수행하는 손과 발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젠틴 후이스만(Jantine Huisman)은 YAB위원회 (Young AnaBaptists)의 회원입니다. 잔틴은 네덜란드의 Algemene Doopgezinde Sociëit 교회의 Doopsgezinde Kerk Joure (Mennonite church Joure) 출신입니다.

필리핀 체계적으로 제자 삼기

에벤에셀 몬데즈

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과 호수, 농장들이 있는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소박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친밀한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일을 공유합니다. 때로는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필리핀어에는 다른 언어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의 깊이가 있는 표현들을 있습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공동체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이가 질병으로 고통 당할 때,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치유 방법은 기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모든 작은 활동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간신히 고등학교만 졸업

한 사람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메노나이트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국제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신학적으로 하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첫 단계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노 (paddle) 없이 바람에만 의지하는 보트처럼, 우리도 주님께 완전히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기꺼이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제자의 마음입니다. 초기 메노나이트 교인들처럼, 믿음을 지키다 기꺼이 죽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남겨 둘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 즉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를 삼는 책임

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도는 목사님들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생기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직접 가르치시고 돌보셨으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처럼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단지 몇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일은 아주 조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필리핀의 메노나이트 청년회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달 동안, 청년들과 리더들의 교회 출석율이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청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선정해서, 그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새 신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소그룹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들을 격려해서 리더로서 준비시키고 서로를 돌보게 하며, 친구를 초청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부모님, 친구,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양성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대원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신학자들,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의 지식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역할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열정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2017년 2월 현재의 아나뱃티스트 청년 위원회 (YAB) 멤버들의 모임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에벤에셀 몬데즈, 라리사 스와츠, 마카두니스웨 누구루베, 오스카 수아레즈, 자틴 후이스만

사진: 빌헬름 옹거



에벤에셀 몬데즈는 YABs위원회의 멤버로서 필리핀의 롬반 메노나이트 성서 교회의 일원입니다.

미국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라

라리사 스와츠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시작된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상 명령은 종교개혁 중, 초기 아나뱃티스트의 삶과 선교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아나뱃티스트 운동 시작부터, 복음주의적 설교, 제자도의 실천 등은 공동체의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지 못할 정도로 잠 들어있었습니다. 지구촌 남반구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서방 세계의 복음화에 나서기 위해 오고 있으며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의 다수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않은 미전도 지역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로 간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위협

저는 미국 기독교를 위협하는 두가지 요소가 다원주의와 물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만 길을 제시하는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가치가 우월한가? 이러한 질문 앞에 나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하고,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에 살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네”라고 대답하면 할수록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다문화, 세속적 사회에서 살면서 개종에 더 민감 해졌으며

신앙을 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적 믿음은 동시에 옳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세대에서는 “선교”라는 말을 제국주의와 서구 식민지화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서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메노나이트 가정에서 자랐지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 특히 무슬림, 힌두교, 무신론자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복음 14: 6).

우리는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를 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이나 도덕의 체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누가 되지 않게 하면서 겸손히 제시해야 합니다.

함께 동행하기

제게 가장 격려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 6:44)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신앙에 만족하면서 자랐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바울의 말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롬 10 : 13-15).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에레미아 29: 13).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그분의 영광스런 나라로 인도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라리사 스와츠는 YAB위원회 멤버로서 오하이오의 보수적인 메노나이트 교단인 런던 메노나이트 펠로우십의 일원입니다.

짐바브웨 모든 사람들이 부름 받았습니니다.

마카두니스웨 누구루베

저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를 문명과 상업과 함께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은 단지 부름 받은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죄를 짓지 않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함으로써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짐바브웨에 기독교를 전파한 선교사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는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나의 언어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흑인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야 할 명령

그런데 저는 오늘 일단 회개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잃어버린 양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구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

제자를 삼는 일은 일상 밖으로 나와서 행동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안전 지대 밖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



YAB멤버들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2027 Renewal 이벤트에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MWC 수석 이벤트 담당관 Liesa Unger, MWC 회장 Nelson Kraybill 외 Makadunyiswe Ngulube, Enock Shampani, Ebenezer Mondez, Larissa Swartz, Jantine Huisman.

사진: 헤리 웅거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나라에서는 반응이 다양합니다. 짐바브웨에서 복음을 일대일 형식으로 전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도둑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짐바브웨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좋은 방법은 외부 캠페인이나 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은 복음 전하는 대상을 가리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종, 부족, 언어, 성별, 나이에 상관 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너무 젊거나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

물로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거나 또는 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각각의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서, 제자를 삼는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이나 장소가 선별적이라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카두니스웨 누구루베는 YABs위원회의 멤버입니다. 그녀는 짐바브웨 하라레의 이반드라 라바잘와네 쿠그리스투 에짐바브에 BIC 교회의 일원입니다.

오늘과 미래를 향한 성경의 역할

by Valerie G. Rempel

16세기, 당시 가장 위대한 신학 정신을 추구한 사람은 성경을 새로운 차원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험 이 때까지 자신들이 성경을 공부한 내용과 성령의 역사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개혁을 결심한 사람들 중에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 신학을 실천하고 신약 성서가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나뱃티스트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초기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은 성경을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국가가 아닌 교회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시적으로 증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현재 제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관대한 삶을 살았고,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정의를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별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인 신앙 고백에 기초한 자발적인 교회를 형성했고 상호부조를 실천했으며 교회 규율을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초기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신학과 전통, 교회의 실천 사항을 물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성경적 관점에 의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미국 헌법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옛날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선교 사업,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 보건 의료, 교육 등 공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정치적 문화적 특권을 누렸던 시대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기



2017년 2월 세계의 메노나이트 신자들은 독일아우크스르크에서 열린 “갱신2027년”의 첫번째 행사에서 하나님 말씀의 변화시키는 힘을 축하했습니다

사진: 빌헬름 옹거

도 했지만, 또한 타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세속화된 사회와 세속화된 교회가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진적 성경 읽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초창기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근본적으로 다시 읽을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변했습니다. 아나뱃티스트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적 전통에 다시 참여할 것을 요청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적극적 상상과 인도하는 용기

아나뱃티스트 신앙은 16세기뿐 아니라 21세기에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충성 대상이 (국가 또는 하나님)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국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화 된 사회와 그것이 교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편안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소비적인 사회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 - 단순하고 관대한 삶을 사는 것이 때때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신학적 입장 차이를 두고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용기 있는 비전과 적극적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여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나뱃티스트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학적 전통에 다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확산

그동안 뭔가 바뀌었습니다. 아나뱃티스트 신앙은 신학적 운동으로서 지난 수 세기 동안 주로 역사적 메노나이트와 아나뱃티스트 전통 교회 안에서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나뱃티스트 신앙은 교단보다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전세계의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출판물과 웹 사이트를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 아나뱃티스트 운동을 낳은 성경적 관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아나뱃티스트 관점의 삶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실천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 (neo) 아나뱃티스트, 또는 스투어트 머레이가 사용한 “벌거벗은” 아나뱃티스트는 자신들의 교회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나뱃티스트 교회의 신학과 실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 세대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이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 함께 탐구하고 공부하며 서로 배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감격스런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희망이 됩니다.

성경을 아나뱃티스트 신학과 실천적 관점에서 읽는 것은 단순히 과거 아나뱃티스트 운동을 회복하거나 우리의 영적 조상들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충실히 따를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나뱃티스트 초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도한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벨라리 램펠은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퍼시픽 성경 신학대학원의 교수이며 칼리지 커뮤니티 교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갱신 2027 행사의 참석자들은 사도 행전 15:1-21 절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긴장의 원인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질문한 후에 성경 말씀의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진: 헤리 용거

갱신 2027: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

2018년 4월 21일, 토요일
케냐, 키수무

갱신 2027은 아나뱃티스트 운동 5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진행하는 MWC의 영적 쇄신 활동입니다.

2018년 4월 21일 케냐의 키수무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1일간의 공개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 모임은 전 세계의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신자들이 과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성령께서는 지구촌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연사들은 다른 모든 참가자들이 예배, 찬양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제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 모임은 MWC 총회, 네트워크



및 각종 위원회 모임과 관련하여 진행됩니다.

이것은 연례 지역 행사의 두 번째 모임으로서 2027년 제18차 MWC 총회에서 정점을 이룰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mwc-cmm.org/renewal2027

복음에 헌신한 불굴의 종들

아르헨티나 메노나이트 교회의 역사

by Mario O. Snyder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IEMA)는 첫 번째 선교사 (미국 출신), Joseph Shank와 그의 아내 Emma E. Shank의 도착 100 주년을 기념했습니다. Tobias Hershey와 아내 Mae E. Hershey는 수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삶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50개의 메노나이트 교회와 3600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이자 간증입니다.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 (1917-2019)

1917년 9월 11일 아침, 배로 4주간의 여행 끝에,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항 (Port of Buenos Aires)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감리교, 침례교 대표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알려진 기독교 선교 동맹과 아르헨티나 성서 공회의 환영도 받았습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Pehuajó시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필요한 조언과 상담도 해 주었습니다.

처음 일년 반 동안은 그 나라와 사람들, 관



2017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메노나이트 목회자 연구소 목회자들이 브라자도 (La Esperanza de Bragado) 컨츄리 하우스에서 만났습니다.

사진: 아르헨티나 메노나이트 복음 교회(IEMA) 100주년 기념 위원회

습, 스페인어, 방문과 견학 등을 통해 영구 거주지를 식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또한 요셉과 에머 샹크는 계시록 3: 8 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도전적인 삶에 하나님께 힘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또한 토비아스와 매 허쉬는 열정있는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롬 1: 15)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첫 번째 선교사님들의 특징을 잘 나타낸 말입니다. 그들은 무한한 결단을 감행한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불굴의 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아르헨티나 목사님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나

중에 들어온 다른 선교사님들께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목사님은 Albano와 Querubina Luayza 으로 아주 신실한 개신교 기독교 연합의 충실한 지도자로서 길 거리와 광장에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의미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교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미에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100주년 기념

2017년 9월 16일, 선교사님들이 처음 도착했던 푸에르토 마데로 (Puerto Madero) 라고 불리는 도시의 아름다운 동네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MWC 회장 Nelson Kraybill을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은 숙소, 부엌, 회의 장소까지 제공한 자동차에 성경을 싣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모론의 메노나이트 교회는 오래된 전차 안에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973년 사진.



토비아스와 매 허쉬

사진: 아르헨티나 메노나이트 복음 교회(IEMA) 100주년 기념 위원회

John Lapp, Madeline Maldonado 및 메노나이트 미션 네트워크 소속의 Linda Shelly와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교회의 다른 대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시 정부 공무원과 이웃 나라의 메노나이트 18개 교회에서 참석했고 이 특별 행사를 조직한 목사님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전국에서 참석한 목사님들, 방문객들 및 고관들과 함께 기념 식사를 했습니다. 2017년 9월 17일 모교회로부터 참석하신 대표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Nardini시장에서 준비해 주신 장소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16세기 아나뱃티스트 선조들처럼 사랑과 희생과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희망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1919년 Pehuajo 에서 발생한 일

성서 공회의 권고에 따라, 선교 사역은 Pehuajó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 한 전도자들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Buenos Aires) 서부 지역에 복음 전도 활동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선교사님들은 1919년 1월 21일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1919년 1월 26일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에르네스토 수와레즈 (Ernesto

아르헨티나

교회 이름 Alianza Evangélica Menonita

세례 교인 수	33
교회 수	1
담당자	Esteban Alejandro Memetow

교회 이름 Alkolonier Mennonitengemeinde

세례 교인 수	
Colonia Las Delicias	292
Pampa de los Guanacos	376
El Algarrobal	14
Nueva Esperanza	67
담당자	Omar Onischuk

교회 이름 Eastern Pennsylvania Mennonite Church (Argentina)

세례 교인 수	7
교회 수	1
담당자	David Weaver

교회 이름 Iglesia Hermanos en Cristo, Argentina

세례 교인 수	75
교회 수	2
연락	María Caridad Perdomo

교회 이름 *Iglesia Evangélica Menonita Argentina

세례 교인 수	3650
교회 수	79
연락	Juan Sieber

* MWC 멤버십

자료* 글로벌 통계 - 2015 디렉토리



1996년 교회 모임

사진: 아르헨티나 메노나이트 복음 교회(IEMA) 100주년 기념 위원회

Suárez)는 그의 저서 “아르헨티나 메노나이트 교회 50주년”에서 첫 예배 때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라고 고백한 순간을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초의 개종자를 알게 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블로, 아나타, 마리아와 산티나, 할머니 (니콜라스 폰톤) (우리의 친척)과 같은 카바 도르 가족의 일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고 충실한 삶을 살았으며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서쪽 마을을 향해서 이동

복음은 트렌크 라우켄 (Trenque Lauquen), 카를로스 카사레스 (Carlos Casares), 트레스 로마스 (Tres Lomas), 브라가도 (Bragado) 등으로 전해졌고, 작은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소그룹으로 생겨났습니다. 더 나아가 응급 처치 센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생겼으며, 몇 년 후에는 인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Pehuajo에는 성경 학교가 세워졌고 나중에 Bragado시로 옮겨졌습니다. 성경 학교는 마침내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로 옮겨졌고,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의 메노나이트 공동체 (colony)와 교단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메노나이트 복음주의 신학교 알

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2 차 세계 대전) 유럽에서 탈출 한 사람들의 정착에 밀접하게 관여했던 우리의 형제이자 지도자였던 넬슨 리틀러 (Nelson Litwiller) 선교사님의 지도에 따라 기울인 상당한 노력이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우리의 이웃 국가들에 세 개의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온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형제 우애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델베르트 어브 (Delbert Erb) 교수는 아르헨티나의 메노나이트 교회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통합한 매우 유용한 연구를 했습니다.

1. 첫째: 선교와 선교사 (1919- 1954)
2. 둘째: 전환 (1954- 1989). 이 기간은 외국인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미션을 끝냈었습니다. 선교부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 a) 자치
 - b) 자기 자금 조달
 - c) 선교

그후, 다음과 같은 선교 프로젝트

를 제시했습니다.

- (i) 팬타고니안 프로젝트
- (ii) 북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 (iii) 중앙 지역 프로젝트
- (iv) 코르도바 프로젝트

3. 셋째: 국가적 기구

4. 넷째: IEMA를 4 개 지역 (1989-2019)으로 조직 개편, 각 조직, 지도력, 회의 및 활동 (지도 참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평가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겸손하고 진실되게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강조한 것이 기본적으로 “복음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남자와 여자, 형제 자매들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입니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우리보다 앞서간 신실한 형제들로서 공식 문서에 등장했지만 아나뱃티스트 특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교단을 설립하고 전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지식과 실천을 강화하는 아나뱃티스트 관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형제와의 심각한 갈등 상황에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교제를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마리오 오. 스나이더 (Mario O. Snyder), 파블로 스나이더 (Pablo Snyder), 빌리 누에스 (Billy Nuesch), 헤리 베르토 부에노 (Heriberto Bueno)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메노나이트 교회 모임이자 메노나이트 월드 컨퍼런스의 유일한 국가 교회인 Iglesia Evangélica Menonita Argentina (IEMA) 창립 100주년 기념위원회를 구성했다. 차트 참조 (16 페이지).



1990년 메노나이트 복음 교회 리더들 (왼쪽부터): 마리오 스나이더, 세라 볼만, 데이비드 두트라, 델핀 소토

사진: 아르헨티나 메노나이트 복음 교회(IEMA) 100주년 기념 위원회



프랭크와 아내 바일러 선교사님과 가족들

MWC Assemlly: Indonesia 2021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과 수백 개의 언어를 가진 다양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활기차게 성장하는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2021년 메노나이트 세계 대회 개최지로 인도네시아가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인도네시아의 메노나이트 3개 교단 대표자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메노나이트 교회 자문위원회가 두 번째로 모여서 2021년 MWC 총회에 관한 주제와 날짜를 토론했습니다.



사진 캡션: MWC 국제 행사 담당 책임자 리사 웅거 (Liesa Unger)가 인도네시아 3교단 대표자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메노나이트 교회 자문 위원회를 만났습니다. 세 교단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Gereja Kristen Muria Indonesia (GKMI), Gereja Injili di Tanah Jawa (GITJ), Jemaat Kristen Indonesia (JKI).

(왼쪽에서 오른쪽 순): Endang Langlang Buana (GKMI), Tri Gunarto (GITJ), Andi O.S. (GKMI), Agus Setianto (GKMI), Lydia Adi (JKI), Liesa Unger (MWC), Paulus Sugeng Widjaja (GKMI), MZ. Ichsanudin (GITJ), (Sitting, l-r): Daniel Talenta (GKMI), Simon Setiawan (JKI), Suharto (GITJ), Heri Purwanto (GKMI).

아구스 세티안토(Agus Setianto)

Worship Resource: World Fellowship Sunday

우리를 변화 시키는 성령님

요엘 2:28,
미가서 3:8,
사도행전 1:8,
고린도전서 12: 13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새롭게 변형되고 갱신되었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도전에 직면하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합니다.

오늘날 지구촌 남반구에 위치한 교회들은 특히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깨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전세계 아나뱃티스트 연대주일 (2018년 1월) 예배 자료는 MWC 아프리카 지역 대표들이 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의 교인들이 지구촌 글로벌 아나뱃티스트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아나뱃티스트 형제 자매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함께 연대해서 예배합니다.

이 자료는 기도, 찬송, 성경 해석, 예배에 대한 개인적 및 문화적 제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아나뱃티스트 교회들이 이 자료를 이용해서 아프리카 아나뱃티스트 교회의 형식으로 예배하도록 초대합니다.

2018년 1월 또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한 편리한 시간에 전세계 아나뱃티스트 교회 가족과 함께 아나뱃티스트 연대 주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중의 축하 메세지나 사진 및 이 야기를 photos@mwc-cmm.org로 보내주십시오.

mwc-cmm.org/wfs

MWC 재정 업데이트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에 소속된 각 국가별 회원 교단, 지역 교회, 또는 개인들이 MWC에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MWC 핵심 활동을 지지하는 성금은 년초에 많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MWC재정은 여전히 부족해서 현재 연말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 곳에서 MWC에 기부금을 12월에 보내주는데 기부 액수가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바랍니다.

또한 MWC는 특정 사역을 수행하는 데 사

용하는 지정 기금이 있습니다. MWC 핵심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재정 지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WC 사역을 위한 후원, 특별히 MWC 지구촌 행사를 위한 후원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mwc-cmm.org/donate

—렌 램펠, MWC 재정 담당 최고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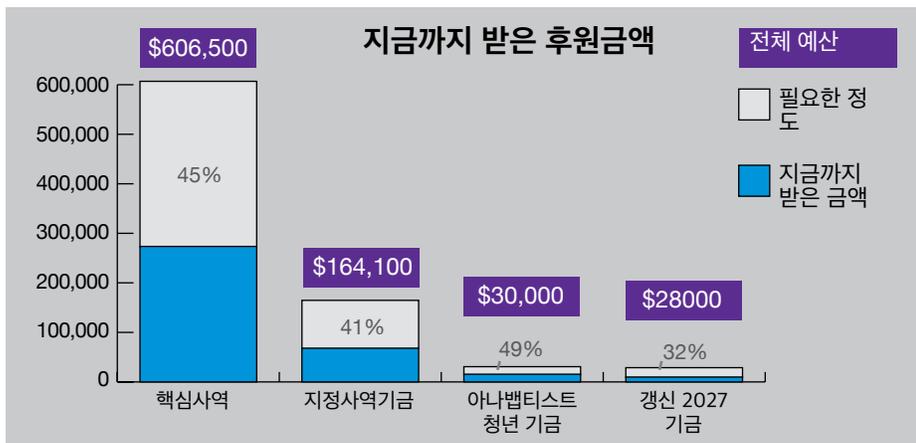
MWC를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다음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 지구촌 아나뱃티스트 가족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킵니다
- 다양한 상황에 처한 지구촌 아나뱃티스트의 정체성과 증거를 강화시킵니다
- 아나뱃티스트 네트워크와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지원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MWC 웹사이트(www.mwc-cmm.org)를 방문해서 "Get involved" 클릭해서 기도제목을 알리고, 후원하기 버튼 "Donate"을 클릭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MWC 사무실 주소에 직접 연락해서 후원하셔도 됩니다.:

- PO Box 5364, Lancaster, PA 17808 USA
- 50 Kent Avenue, Kitchener, ON N2G 3R1 CANADA
- Calle 28A No. 16-41 Piso 2, Bogota, COLOMBIA



Contributions received as percent of budget as of 31 August 2017.

선교 위원회의 만남



(L-R): Andi Santoso, Agus Mayanto, John Fumana, Philip Okeyo, Rafael Zaracho, Stanley Green, Hermann Woelke, Kelbessa Demena, Barbara Hege-Galle. 선교 위원회 사진, 2017년 옥스버그 모임
Photo: Wilhelm Unger

선교위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전세계적 증거와 섬김에 관한 포럼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선교 위원회는 Global Anabaptist Service Network (GASN)와 Global Mission Fellowship (GMF)을 모아 대화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두 (GASN, GMF)의 소위원회는 전세계 120 개 이상의 봉사 및 사역 기관을 대표합니다.

GMF의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에게 선교 위원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한 곳을 중점 대상으로 한 세계적, 대륙적, 국제적, 국가적 파트너십을 격려합니다.

GASN소속 단체에 대하여, 선교 위원회는 어디든지 도움이 꼭 필요할 경우에 응답하기 위해 소속 단체간 대화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선교위원회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다가오는 MWC 회의(매 3년마다 개최)와 같은 모임에서 서로 배우고 지지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GMF와 GASN은 2018년 4월 17-20일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주제로 만날 예정입니다.

선교 위원회의 비서인 라파엘 자라초(Rafael Zaracho)와 의장 스탠리 그린(Stanley Green)은 “우리는 선교, 대화 및 지원에 있어서 글로벌, 대륙, 국내외적 파트너십을 자극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선교에 관한MWC의 열 개의 선언문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나뱃티스트 관점)을 포함한 아나뱃티스트 선교에 관한 기초 문서들을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mwc-cmm.org/missionresources

새로 나올 책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나뱃티스트 관점 이 책은 지구촌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선교학에 관한 120 페이지 분량의 MWC



추천 도서로, 2018년 케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책에서 저술가 10 명은 전세계 아나뱃티스트 교회의 지리적 맥락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아나뱃티스트 관점에서 선교에 관한 성경적/신학적/목회적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책은 주일 학교 및 신학교에서 대화, 숙고, 행동 결의 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워크샵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교 위원회 멤버(9명)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anley Green, chair (미국)
- Agus Mayanto, vice-chair & Global Mission Fellowship chair (인도네시아)
- John Fumana, vice-chair & Global Anabaptist Service Network chair (콩고)
- Rafael Zaracho, secretary (파라과이)
- Kelbessa Demena (이디오피아)
- Barbara Hege-Galle (독일)
- Philip Okeyo (케냐)
- Andi Santoso (인도네시아)
- Hermann Woelke (우루과이)

프레지던트 칼럼

기억하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자



볼프강 크라우스가 독일 옥스버그에서 아나뱃티스트 역사 탐방 그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 넬슨 크레이빌

올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MWC 집행위원회가 열렸을 때, 우리는 초기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의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 도시에서 아주 오래된 지역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1528년 부활절 아침 88 명의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이 불법 모임을 가졌다가 발각되었다는 큰 집에 들렸습니다. 그들은 부활주일에 체포되어서 추방당하거나, 고문 받고 처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일행 중, 누군가 오늘날 아나뱃티스트 신자들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 에티오피아의 한 형제가 손을 들고 “오늘날 벌어지는 박해에 대해 말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남반구에서 아나뱃티스트 교회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오늘날 아나뱃티스트 그룹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MWC가 아나뱃티스트500주년 행사를 조직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먼지 투성이 역사를 검토하고, 과거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아나뱃티스트 역사의 기원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대화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연결시킬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2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MWC Renewal 2027 행사에, 5개 대륙에서 온 아나뱃티스트 청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발표했습니다 (###-### 페이지 참조). 이것은 낭만적인 과거 역사를 회고하기 위함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케냐에서는 아프리카의 아나뱃티스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갱신2027축하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강조하는 아이콘처럼 상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콘은 신성(divine)한 것을 발견하는 창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아나뱃티스트 교회 역사의 영웅들과 이야기들은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넬슨 크레이빌은 MWC 회장 (2015-2021)이시고 현재 미국 인디애나에 거주합니다.



MWC Publications Request

I would like to receive:

MWC Info

A monthly email newsletter with links to articles on the MWC website.

- English
- Spanish
- French

Courier

Magazine published twice a year (April and October)

- English
- Spanish
- French
- Electronic Version (pdf)
- Print Version
- Mailing delays? Consider the benefits of electronic subscription. Check this box to receive your *Courier/Correo/Courier* subscription via email only.

Name

Address

Email

Phone

Complete this form and send to:

Mennonite World Conference
50 Kent Avenue, Suite 206
Kitchener, Ontario N2G 3R1 Canada



사진: 인도네시아 생활 TV

말씀으로 변화 됨



“갱신2027”은 메노나이트 세계 협의회가 아나뱃티스트 신앙 공동체의 500주년을 기념하기 선택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나뱃티스트 500년 역사를 앞으로 10년 동안 교파와 문화를 초월해서 지구촌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간의 이벤트 기간 동안, 우리는 미래를 내다 보기 위해 과거를 기억할 것입니다.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Gabriel Garcia Marquez)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기억하려는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감사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 회개와 갱신의 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활동은 “말씀으로 변화됨: 아나뱃티스트 관점에서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라는 종교개혁 모토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수도원의 이상이 아나뱃티스트 전통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글로벌 신앙 공동체와 계속해서 어떻게 관련 있는지도 탐구해 볼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Augsburg)에서 MWC 회의가 열렸을 때, 암스테르담의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설치된 작품 하나를 본 것이 기억납니다 (표지 참조). 성소의 중심에는 강단이 있고 그 가운데 성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성경책장들이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성경 책장들이 바람에 의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에 삼입되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아나뱃티스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대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나뱃티스트 역사에서 우리 삶의 대본으로 조명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성한 본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교리적 정통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리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보다는 그런 선물 구절들은 아예 제쳐 놓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가운데 연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리적, 교리적 차이가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릴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부적절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분열에 대해 회개하는 태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게 방해 하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갱신을 추구합시다.

오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경 이해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은 근절해야 할 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자 하는 바람은 우리를 상호 의존의 정신으로 결합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가기 바랍니다!

시저 가르시아, MWC 사무총장, 콜롬비아 보고타 사무실에서 근무함